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b>인천의꿈*</b> <b>대한민국의미래</b>
		배포일자	2023년 2월 17일(금) 총 2매	
담당 부서	경 제 정 책 과	담 당 자	• 소비자물가담당 • 담당자	김상정 ☎440-4201 서주희 ☎440-4202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버스·택시 등 7대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하기로

- 도시가스, 대중교통(택시, 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등 7대 공공요금 동결 결정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어려운 경제난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요금을 올 상반기에는 동결하기로 전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정복 시장이 ‘인천시 공공요금 동결’ 방침을 밝혔다.

인천시는 민생의 한 축으로서 공공요금 안정을 통해 조속한 경제안정과 서민·취약계층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유 시장의 의지로도 읽히지며, 인근 타 시도와 달리 인천시에서는 공공요금 동결에 따른 효과를 배가시키고자 인천시 재정에 부담은 되지만 시가 관리하는 공공요금 전부에 대하여 상반기에는 동결하기로 통 큰 결정을 한 것이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시내버스는 189억 원, 도시철도는 50억 원 등의 시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인상했던 하수도 요금도 상반기 중에는 감면하기로 해, 공공요금인상으로 인한 시의 시민 부담 완화 의지에 더 큰 힘이 보태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반기로 연기된 상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며, 교통요금도 서울시,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균형을 맞춰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달과 이달 초 난방비 폭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저소득주민, 사회복지시설 뿐 아니라 차상위 취약계층에도 난방비 173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시는 서민의 가계부담과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10개 군·구에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1억 8,87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 등을 보급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들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덜어주고자 공공요금 상반기 인상 동결을 추진하는 만큼, 관계자 분들의 이해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며, “앞으로도 인천시는 공공요금 인상 억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생현안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민생 경제 및 사회의 안전에 대해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